

광주시, 사회공헌 생태계 조성 박차

전담조직 구성·운영...사회공헌위 추진 로드맵 완성 민관 참여기관 확장·인증제 도입 통해 나눔문화 장려

광주시가 사회공헌지원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를 바탕으로 기부와 나눔문화 저변확산 등 지속가능한 사회공헌 생태계 조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 1월 사회공헌지원팀을 구성하고 혁신도시 공기업, 일반기업 등 공공기관 외 민간부문에서도 사회공헌 활동이 활발히 전개되도록 기본계획(로드맵)을 수립했다.

주요 내용은 ▲사회공헌위원회 구성·운영 ▲사회공헌 관련 교육 및 사회공헌 주간 운영 ▲우수 사회공헌자 표창 및 사회공헌기업 인증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 제정 ▲사회공헌백서 발간 등을 통해 생활 속 사회공헌활동 참여 분위기 조성 등이다.

지난 6월에는 사회공헌 시책마련과 인증 및 예우, 사후관리, 사회공헌위원회 구성 등의 내용을 담은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조례'를 제정하며 제도적인 정비 절차도 모두 마쳤다.

아울러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수요자와 공급자를 자동으로 연결시켜 주는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고, 지난 5월 3개 연금공단(국민·공무원·사학)과 다

업후협약을 체결하는 등 시민들의 재능 기부 활동도 활발히 전개될 수 있는 여건조성에도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동안 일반 기업체 중심으로 추진해 오던 민·관 협력사업도 시 산하 공공기관 및 나주 혁신도시 공공기관 등 참여기관의 확장으로 물품후원, 태양광설비 설치, 청소년 취업역량향상 프로그램 등 사업 영역 다각화를 적극 추진 중이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시로 접수된 지정기탁은 10월 현재 76건·24억2천200만 원 2018년 대비 35% 증가했고, 업무협약을 통한 민관협력사업도 6건·2억2천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0% 증가하는 등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기업과 시민의 관심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광주시는 앞으로 기업 및 공공기관 사

회공헌영역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사회공헌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회공헌활동 우수기업 등에게 인증서와 현판을 제작해 수여하는 '사회공헌인증제'도 도입한다.

사회적으로 귀감이 되는 사회공헌인 증기업은 시 홈페이지와 시 청사내 별도의 오프라인 홍보코너를 마련해 선의의 활동을 대내외적으로 널리 알리고 나눔과 기부문화를 조성해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달에는 참여방법과 절차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사회공헌 지원사업 참여안내 책자를 제작해 지역의 기업체, 공공기관, 사회복지 단체 등에 배포하며 사회공헌에 대한 이해를 돕고 손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최권범기자

국제농업박람회 11일간 대장정 돌입

36개국 447개 기업·단체·기관 참여...전시·체험 풍성

세계 36개 나라 447개 기업·단체·기관이 참여하는 농업종합축제의 장인 2019 국제농업박람회가 17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11일간의 대장정에 들어갔다.

전남도가 주최하고 (재)전남도국제농업박람회가 주관하는 2019 국제농업박람회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판로 개척 및 농업 정보 교류를 통한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개최된다. 지난 2012년 첫 국제박람회에 이어 올해 4번째 개최되는 대한민국 유일의 농업 분야 종합박람회다.

특히 이번 박람회에선 여성 농업인의 활동에 대해 알아보고 향후 4차 산업혁명을 위한 농업 융복합화에 따른 여성 농업인의 역할을 살펴볼 수 있는 여성정년농업관을 개관했다.

홍보대사 송가인씨가 함께 한 개막식에는 인도, 일본, 몽골 등 20개 나라 외국 사절단 일행과 시군에서 많은 농업인이

참여했다. 2019 국제농업박람회 성공 개최를 염원하는 '희망새싹' 세리머니와 홍보대사 송가인의 축하공연까지 다채롭게 준비됐다.

국제농업박람회 이사장인 김영록 전남지사는 "전남의 새로운 바람, '블루이코노미'의 중심에 농업이 있다"며 "2019 국제농업박람회를 통해 농업의 혁신과 발전 방향을 보여드리도록 정성껏 준비했으니 박람회를 마음껏 즐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올해 박람회는 국내외 45만 관람객을 목표로 ▲여성농업마당 ▲전시체험마당 ▲상생교류마당 ▲혁신기술마당 ▲홍보관매마당까지 5개 마당 12개 전시·체험·판매관 3개 특별전시로 꾸며졌다.

모든 전시관에선 패널 중심의 전시가 아닌 다채로운 전시 기법과 체험·시연 위주의 콘텐츠가 펼쳐져 관람객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김재정기자



김지사, 오사카 한국상의 회장단 면담 김영록 전남지사가 17일 도청 접견실에서 총지원 오사카한국상공회의소 회장 등 일행과 면담하고 있다. 이날 김지사는 12명으로 구성된 오사카한국상공회의소 회장단을 맞아, 전남 관광 상품과 농수특산물 수출 등을 주제로 환담했다. /전남도 제공

광주사회적경제 협업박람회 연다

20-24일 시청 일원서 상품홍보·판로확대 나서

광주시는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시청 일원에서 사회적경제 판로개척과 생태계 확산을 위한 협업박람회 '함께가치'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광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주관하며, 광주사회적경제의 업종별 협업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협업분과별로 개발된 제품과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선보이는 협업사업과 상품홍보, 판로개척, 판로지원 등 총 4개 분야의 17개 세부행사로 진행된다.

협업사업 분야에서는 반려동물분과와 '제2회 명남피크닉'과 교육·체험분과의 '사회적경제와 함께하는 진로교육축제', 키프·음료, 제과·제빵분과의 신제품 시식회가 열린다.

상품홍보 분야에서는 협업사업 100여 개의 사회적경제 제품과 서비스 등 결과물을 소개하고 전시하는 '2019 광주 사회적경제 상품대전'도 개최한다.

판로개척과 관련해서는 행사 기간 공공구매 판로 확대를 위해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나주혁신도시 입주기관 등이 참여하는 공공구매 담당자 교육 및 공공구매 약정식, 유통채널 엠디(MD) 초청 상담회 등이 열릴 예정이다.

판로지원과 관련된 다양한 포럼도 열린다.

광주-대구 달빛교류 사업의 일환으로 영호남 사회적기업 교류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경제 공동토론회, 광주 리빙랩 네트워크 포럼, 사회서비스 활성화 포럼, 사회적경제 활성화 연구 포럼 등이 진행된다.

행사를 주관한 광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관계자는 "이번 협업박람회를 통해 시민들에게 광주지역의 사회적경제를 알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회적경제의 다양한 협업과 판로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권범기자

'한·아세안 정상회의' 성공 기원 특별열차 광주 방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이미지 확산 등 기대

한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ASEAN) 11개국 국민 200여명이 서로의 우호·협력을 기원하기 위해 특별열차를 타고 광주를 방문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광주시는 17일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성공개최를 기원하는 부대행사인 한·아세안 특별열차가 서울, 경주, 부산, 순천 등을 거쳐 이날 광주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는 한-아세안 대화관계 30주년을 맞아 오는 11월 25-26일 부산에서 개최된다.

이날 광주 어린이들은 전통의상인 한복을 곱게 차려 입고 한·아세안 특별열차 참석자들을 환영하며 광주의 정을 보여줬다.

특히 이날 행사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시 광주의 이미지를 확산시키고 한·아세안 관계를 격상시키기 위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아세안의 문화 허브, 빛의 도시에 꽃피다'라는 주제로 특별 전시가 열렸다.

아세안 국민들과 광주시민들은 함께 전시회를 관람하며 상호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특별전시 관람 후에는 '함께하는 문화'를 주제로 네트워크 리셉션이 진행됐다. 한·아세안 주요 인사들은 네트워

크 리셉션에서 대화를 통해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한국과 아세안국가 간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날 행사에는 광주에 거주하는 아세안 출신 다문화가족들이 참석하며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정중제 행정부시장은 "한국과 아세안은 전 세계적인 신보호무역주의의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지만, 이를 때릴수록 더욱 협력관계를 공고히 해 위기를 기회로 창출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한·아세안은 단순한 경제협력을 넘어 서로의 삶을 더 가치 있게 하는 것에 관심을 쏟아야 한다"고 말했다.

/최권범기자

광주환경공단, 농아인 초청 에코투어

광주환경공단(이사장 김강열)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환경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광주시 수어통역센터와 연계해 에코투어를 추진했다고 17일 밝혔다.

광주시 수어통역센터 직원 및 농아인 40여명과 함께한 이번 에코투어는 의사소통 등의 어려움으로 평소 어디든 떠나기

힘든 농아인들을 위해 특별히 마련됐다.

이들은 '물 순환코스'인 주암호생태습지를 시작으로 광주상수도사업본부의 덕남정수장, 환경공단 제1하수처리장을 차례로 둘러봤으며 이를 통해 원수부터 하수처리까지의 물의 흐름과 순환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최권범기자

광주매일신문 호주 문화탐방

호남 최초 호주 초차 300석 세계적 명소를 만나다

11월 28일 단 한차례 아시아나항공 A380으로 진행

11/28 (목) ~ 12/3 (화) 인천출발 (4박6일 일정)

상품가 2,390,000원 (노팁·노음선)

힐링과 함께 소중한 추억을 ...

-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블루마운틴'
- 해변과 사막이 이어진 '포트스테판'
- 호주의 상징 '오페라하우스·하버브릿지'
- 토착원주민 쇼를 즐기는 다양한 문화체험
- 여유롭게 즐기는 호주와이너리투어

알지도 관광특전

- 인천공항수송
- 인솔자동행
- 여행자보험
- 여행가이드북
- 여행용파우치
- 호주비자(ETA)
- 알지도 투어의 밤
- 짐택
- 목베개
- 슬리퍼
- 여권커버
- 각종반찬+아답터+간식세트

주최 문의 주관 www.rgotour.com 대표문의전화 1522-8484